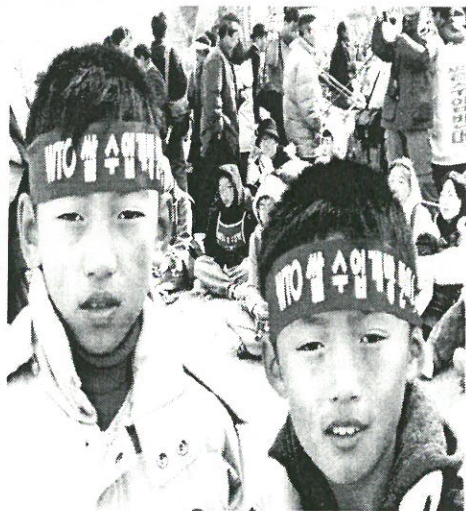


사랑사랑

제95호 (2002/11/22)

우리 쌀을 지키자!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 대회 2002. 11. 13

대회 한 장면(왼쪽), 부모님을 따라 대회에 참가한 형제(오른쪽)는

“외국쌀이 들어오는 걸 막고 우리 쌀을 지키는 것” 위한 것이라고 대회를 설명했다.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lian.net



민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권력을 향한 '돌맹이'가 되기 위해

-하루소식의 속앓이는 계속된다-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 좀 바꿔주세요.” 이런 전화의 대부분은 ‘하루소식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취재해달라’, ‘○일자에 실린 기사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기사에 실린 관련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등의 내용이지만, 간혹 이런 예상을 뒤엎을 때가 있다.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 아니냐?’,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류의 항의성 전화가 그것이다.

어느 토요일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연희 파출소 누구라고 자신을 밝히는데, 그는 바로 그 전날자(5월 17일) 기사의 관련 인물이다. 한 시민이 경찰의 부당함에 대해 서울시경 청문감사실에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 연행되고 꼬투리가 잡혀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 사실을 제보한 시민이 조리있게 시간대별로 사건의 경위를 알려왔고 서울시경, 서대문경찰서, 연희파출소 등에 대한 취재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문제의 경찰도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청문감사실에 전화했다는 얘기를 듣고 불쾌한 생각에 그 집에 가서 데리고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자 그 경찰은 전화를 해, ‘왜 그런 기사를 썼냐’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의 주인공인 시민을 얻르고 협박하며 ‘종게 끝나는 게 좋지 않냐’며 신고를 철회토록 했다. 더구나 청문감사실까지 합작. 경찰 내의 자정기관이라는 청문감사실 역시 자기 사람 감싸기에 무척이나 철저했다. 후속 기사를 써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민은 하루에도 몇 차례나 경찰이 전화하니까 자신이 이번 일로 괜히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닐까 지나치게 걱정했다. 수시로 마음이 바뀌더니, 후속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올라간 예전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루소식에 요청해오기까지 했다. 결국 후속기사는 불발되고 말았다.

〈하루소식〉은 올해 초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평택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에바다 농아원의 옛 재단 쪽인 당시 행정실장이 〈하루소식〉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니 조사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당시 에바다 농아원 정상화 연대회의 쪽 사람들은 다들 그 행정실장이 민주적 이사진과 원장, 학교장의 농아원 출입방해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단서를 못 잡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지역신문 기자가 농아원 안에서 그 행정실장을 만났고 그가 문에서 출입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통화를 하며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린 기사(1월 15일자)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 행정실장은 과거에도 고소를 남발해, 아는 사람들은 다들 조심을 한다고 지역신문기자가 나중에 알려졌다. 이 일로 〈하루소식〉은 평택경찰서까지 두차례나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그러나 9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후 소식은 없다.

이밖에 ‘글리백, 국내최초 강제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 추구 제동’(2월 2일자), ‘희망 퇴직 압력에 노동자 사망 - 대우자관, 요양 중에도 전화해 퇴직종용’(2월 15일자), ‘테러 방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도 모호’(5월 10일자),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단식’(10월 17일자),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지징벌 - 30일부터 다시 집단단식 시작(11월 1일자) 등도 시련을 겪었다. 전화를 걸어오거나 후속 취재를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 불만을 쏟아놓는 이들은 제약회사의 홍보대행사, 기업의 노사협력과, 경찰, 청송감호소 등 이른바 권력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내색은 안 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 썼나?’ 일단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로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거나 숨기고 싶은 사실이 널리 알려진데 대한 불만이 가득한 불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기사를 확인해보면, 문제가 되는 관련자의 주장도 실려있고 사실 자체도 틀리지 않은 데 말이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자신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입막음용’ 경고인 경우다.

사실을 부분적으로 잘못 기재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옳은데도 그 가치가 삭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요구 파업 기사(1월 24일자)와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중국인동포 여성이 차별진정을 제기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했다는 기사(11월 7일자)가 그것. 해당 사업주와 국가인권위의 문제제기를 받고,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물론 이때마다 ‘바로그침’ 기사들이 〈하루소식〉에 실렸다. 그러나 그 일부 사실을 발미로 상대방이 그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체를 부정하려고 할 땐 정말 기자들의 속이 탄다. 위의 중국인동포 기사와 관련해선 전화를 걸어온 국가인권위 사람이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자신은 〈하루소식〉 인터뷰를 거부하겠다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

기사가 비판의 화살을 쏘았던 이들의 항의 전화를 받거나 심지어 소송에까지 휘말리고 나면, 때론 도전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인권적 관점의 개입 없이, 양쪽의 주장을 무미건조하게 전달하고 싶은 유혹에 괴롭고 자기검열에 시달리기도 한다. 발송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 후에도, 그 다음날 자 기사 내용과 예상되는 항의성 전화가 떠올라 잠을 설치는 적도 있다.

그러나 인권하루소식의 존재의의를 되새기며 용감해져야 한다고 다짐하곤 한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권력이나 국가권력의 반인권성과 이들에 의해 은폐된 진실들을 세상에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때로 그것은 명예훼손 소송이나 항의성 전화를 감수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일 때도 있다. 그러나, 가리워진 진실을 밝히고, 소외된 자의 편에서 서서 권력을 향해 '돌맹이'를 던지기 위해 오늘도 <하루소식>은 현장에 나가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꿈파커툰

이 동수

*꿈파란 '꿈꿈히 따지며 살자'의 준말이에요...^^



사/업/보/고

(2002년 10월 넷째 주 - 11월 셋째 주)

인권교육실

1. 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후속사업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정보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위원회와 정부대표단과의 회의에서 핵심사안에 접근하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오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원활동가 최용희 씨가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현황을 취재 중이며, 교육실에서는 장애아동의 현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각 부처가 정부대표단에 사람 내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도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제인권조약 심사회에 대해 별다른 준비가 없는 듯 합니다. 대선을 앞둔 탓도 있을 것이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현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2003년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정부가 성의 있는 준비로 맞기를 기대하며, 교육실은 추가 정보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인권교육길잡이』 개정판 준비 박차

『인권교육연구모임』의 모임시간을 금요일에

서 목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자원활동가 신성연이, 고은영씨의 노고 속에 자유권 영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마쳤고, 사회권 영역의 자료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올 겨울에 맺는 가장 값진 열매가 되기를 바라며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청년인권워크숍, 내년 1월 10-11일

청년인권워크숍을 2003년 1월 10-11일, 서울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갖습니다. '청년' 인권워크숍으로 한 것은 그간 교육실이 '대학생' 인권워크숍만을 개최함으로써 상당수 청년을 소외시켰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청년워크숍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는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상한선(?)을 고민해봤으나 그 또한 많은 청년(?)들의 분개를 살 것 같아서요. 인권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비는 2만원(숙식, 교재 제공)이며, 1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1월 11일(토)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30명입니다.

4. 교육실 게시판, 숙제 문의로 몸살

교육실 게시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숙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려 하지만 바쁜 일과 때문에 대답할 시간을 내기 어렵고,

노골적으로 (본인 노력없이) 숙제를 부탁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곤혹스러우면서도 초·중생들과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환경 변화에 반가움을 느낍니다.

5. 경희대 '한국사회와 인권' 강의 계속
교육실이 맡고 있는 경희대 교양선택과목 '한국사회와 인권' 강의를 내년 학기에도 계속합니다. 다음주면 벌써 2학기 종강을 하게 됩니다. 두 학기를 강의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겨울 동안 좀더 준비해서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의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에서 사용한 '읽을 거리'의 제공을 원하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래 이 강좌를 맡은 목표중의 하나였는데, 일정에 쫓겨다니다 보니 이번 학기도 종강이군요. 이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관심 가진 분들에게 '정리된 꾸러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학기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

1. <인권하루소식 디비> 시범운영 후 정식 개통

드디어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막바지 프로그래밍 손질을 하고 있으며 11월 마지막 주에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정식 개통하게 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에는 2000

년부터 2002년까지 3천여건 인권하루소식 기사가 제공됩니다.

<인권하루소식 DB>는 크게 '주제별 찾기'와 '자세히 찾기' 두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제별 찾기'는 인권분류체계에 기초하여 9개 대분류/ 43개 중분류/ 66개 소분류 체계로 나누어 이용자들이 쉽게 인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주제별 찾기'의 인권분류체계만을 보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세히 찾기'는 주제어/ 단어/ 날짜/ 호수/ 작성자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어검색은 인권하루소식 기사본문, 제목에 나와있는 모든 단어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제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지난 3년간 인권하루소식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와 인권운동의 기록을 담은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가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운동의 전문화·과학화를 위한 연구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기사들은 출처를 밝히는 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인용하거나 재가공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인권데이터베이스에 '영문 소수자' 등록 완료, 국문 2002년 신착자료 등록 중
인권정보자료실은 인권데이터베이스에 영문 소수자 90여개 자료를 등록했고, 현재는 2002년 국문 신착자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에는 이주노동자, 여성, 인종적 소수자, 장애인, 동성애자, 난민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정리와 입력에 자원활동가 백은관 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3. 사회권 관련 권리용어 등록

〈유엔과 인권 꾸러미〉에 사회권 관련 용어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노동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결성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권,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교육·문화권 등 간단한 용어해설과 관련 국제조약(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유럽사회헌장, 미주인권협약 등) 등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용어해설은 유엔 인권관련 용어 INDEX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사업반

1. 하월곡동 인권실태 취재

기획사업반에서는 6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지난 11월 4일부터 〈사회권 실태조사팀〉을 꾸려 성북구 하월곡동 지역 주민들의 사회권 침해실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빈곤과 사회권 침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동시에 향후 사랑방의 사회권 운동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사회권규약 해설서 작업이 개별 사회권의 구체적 권리내용과 국가의무를 밝히는 것이라면, 이번 실태조사 작업은 그 이론적 근거 위에서 빈곤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인권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취재대상은 하월곡 3동의 77번지와 산2번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로, 77번지는 이미 철거가 진행중이며, 산2번지는 2년 이내에 재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주거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향유실태를 듣고 보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하루소식을 통해 기사화될 예정입니다. 11월 29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나가게 되는 기사는 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별 향유실태와 함께 국가정책의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장세동이 대선 출마를?

지난해 연말,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수지김 사건의 주모자 장세동이 연말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수지김 살해범 윤태식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했던 장세동은 '공소시효'라는 장막 뒤에 숨어 처벌을 면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의 주모자를 올바로 사법처리하지 못한 결과가 대통령선거 출마라는 희극적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반의 자원활동가들은 장세동의 출마를 계기로 공소시효제도의 부당함을 알려내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 인권활동가대회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 인권운동 연대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2002 전국인권활동가 대회'가 개최됩니다. 사랑방

을 포함한 10개 인권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대회는 11월 30일 - 12월 1일, 이틀동안 조치원청소년수련원에서 있습니다.

〈한국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 연대 운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전체토론과 △인권교육의 전략 △국제연대 활동의 방향과 전략 △사회권운동의 전략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인권영화제

1. 인권영화제 담당자 김정아 상임활동가가 11월 18일 암스테르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주최하는 암스테르담 인권영화제에서 내년 인권영화제를 위한 작품 수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국 전날 좋은 소식도 날아왔습니다. 초청손님으로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는 주최측의 (전혀 기대 못했던) 배려에 가볍게 날아간 김정아씨가 지금 좁은 아침부터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인권영화 상영장에서 눈알이 빨갛게 되었을 것입니다. 11월 29일에 귀국하는 김정아씨가 따끈하고 날카로운 인권영화들을 안고 날아오길 기대합니다.

2. 세 번째 반딧불 대박

인권영화정기상영회 '반딧불'이 세 번째에서 드디어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빈 자리가 민망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상영한 '신의 아이들'에서는 좌석을 꽉 채운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 편집장은 광고기사에서 '신의 반딧불'로 제목을 내보내는 실수를 저질렀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주시는 한분 한분이 가장 반가운 선물입니다.

다음번 반딧불은 12월 7일(토) 3시와 7시이며 붉은 대기(Le Fond De L'Air Est Rouge)를 상영합니다. 장소는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지하 아트큐브이며 물론 '무료'입니다. 붉은 대기는 60년대와 70년대 베트남, 볼리비아, 68년 5월, 프라하, 칠레 등 전세계에서 발발한 정치적 전쟁과 신 좌파의 운명을 서사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는 베트남 전쟁부터 체게바라의 죽음, 1968년 5월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파트 1과 프라하의 봄에서 프랑스 및 칠레에 이르는 이야기로 구성된 파트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랑/방/소/식

(2002년 10월 넷째 주 - 11월 셋째 주)

1. 눈코 뜰새 없는 11월

안 바쁠 때가 없지만 11월은 사랑방 성원 모두에게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24시간 사무실에 불이 꺼질 새가 없을 정도로 몰아닥치는 인권사안에 모두들 '헉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 단식농성,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 밀려드는 교육과 인터뷰 요청, 국회 막바지에 몰린 시위와 토론회 등과 불청객인 독감에 대응하면서 '손오공'처럼 자기 몸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2. MBC PD수첩 제작진-장지연 언론상 상금 후원

11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이 사랑방을 방문하여 장지연 언론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중 일부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달했습니다. 사랑방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세금공제 혜택도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인권활동에 기여하고 싶다는 제작진의 뜻을 모아 3백만원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사랑방은 이 후원금을 경상비로 지출하지 않고 '특별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4. 불티나는 감옥법령자료집과 사회보호법

청송보호감호소 재소자들의 단식농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구금시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재소자들이 권리공부를 위해 애독한다는 사랑방의 '감옥법령

자료집'에 대한 입소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감옥법령자료집'에 대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진상조사단을 맞은 재소자 대표의 손에도 그 책이 들려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어렵게 세상에 알려진 '사회보호법'의 반인권성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후속활동을 벌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5. 박래군 상임활동가 복귀 늦어져

애초 10월말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되었던 박래군 상임활동가의 복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고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진실 헤리기 작전으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 사랑방 송년회

올해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송년회는 12월 18일 열립니다. (장소 미정) 후원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석유통을 들고 주유소로 가는 길에서 밟히던 낙엽이 사라진지도 꽤 된 듯하고, 이제 그 길에는 눈이 쌓이게 되겠지요. 단단한 몸과 마음으로 이 겨울을 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독감 조심하세요. ☺

2002년 10월 회계 보고

(2002년 10월 17일 - 2002년 11월 16일)

이월금 : 2,470,967 원	
수 입	지 출
■ 사업수익 2,823,270원 -하루소식 1,956,770원 구독료 1,724,420 기사매금 232,350 -간행물 판매 28,000원 깨어나 일어나 2권 모든 인간은... 1권 -자료제공 183,000원 -강연료 610,000원 -<희망>판매 45,500원 ■ 후원금 8,602,000원 정기후원 5,302,000 특별후원 3,300,000 ■ 활동가 기여금 48,000원 ■ 은행이자 740원 ■ 기타 65,000원	■ 사업비 811,350원 -하루소식 우편발송 183,450원 -자료실 110,000원 -감옥인권 73,350원 -사람사랑 제작발송 133,730원 -연대사업비 120,000원 -출장비 및 취재비 190,820원 ■ 활동비 3,150,000원 ■ 사무실유지비 1,290,920원 ■ 통신비 1,138,970원 ■ 사무국 식비 456,340원 ■ 사무비품 170,300원 ■ 생활비 251,000원 ■ 기타 633,060원
총수입 : 14,009,977 원	총지출: 7,838,940원
잔 액 : 6,171,037 원	
11월 잔액 중 3백 만원은 특별사업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다음달 이월금은 3,171,037 원입니다.	

〈2002년 10월 재정 세부내역〉

- 이영숙님, 김민선님께서 특별후원금을 주셨고, MBC PD수첩 팀(위암 장지연 언론상 수상)에서 상금의 일부를 사랑방에 후원금으로 주셨습니다.
- 과거 70년대부터 사회단체 인쇄물을 제작·지원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던 강은기님(세진인쇄)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분들께 조의금을 전달했고, 겨울철 난방을 위한 난로구입 비용이 기타지출에 포함되었습니다.
- 박선옥·임석현님께서 쌀과 김치를 보내주셨습니다.

<10월 후원금 압부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11/17일(지로는 11/15)까지

